



## 4년 만에 복귀해 게임시장 ‘올인’ 선포

네오위즈 사장 나성균

**게**임포털 피망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나성균 사장이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지난 2001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나 사장은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4년 만에 경영에 복귀해 게임 시장에 ‘올인’을 선포했다. 나 사장은 경영복귀와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게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검색시장 진출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식

언급했다. 나 사장은 “게임사업 강화를 위해 독립경영체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 뒤 “세이클럽과 주크온 서비스는 개편을 단행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검색사업은 분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부문 역량집중을 위해 올 초 론칭시켰던 검색서비스부문은 조만간 분사시켜 사실상 네오위즈에서 손을 뗄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력해 왔던 배급사업에 더해 자체 개발작 서비스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나 사장은 “게임을 모든 인터넷비즈니스의 중심축에 배치하고, 인력과 자금 등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수년 내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분야에 대한 집중화 전략과 함께 ‘주크온’ ‘세이클럽’ 등 근간 비즈니스에 대한 체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양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과 콘텐츠보강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용자 풀 확보와 수익성 강화를 통해 인지도와 수익성이 함께 커나가기로 한다는 복안이다.

‘세이클럽’과 ‘주크온’ 서비스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할 것이며,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크온에 대해서는 현재 음원 확보에 노력해 가장 많은 음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유료 스트리밍 시장이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꾸준한 전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인수합병설에 대해서 나 사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인수나 피인수 등 어느쪽도 지금의 상황에선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반면 투자, 제휴, 공동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든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지난 97년 회사 설립 때처럼 들뜬 모습이었지만, 넘치는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 사장은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100년 기업 네오위즈를 건설하는데 있어 또 한 번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며 “네오위즈가 게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넘버1’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사장이 올해 ‘게임’을 키워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복안을 내세우게 된 것은 최근 ‘스페셜포스’나 ‘요구르팅’ 등 퍼블리싱 게임들이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데다 NHN과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로는 더 이상 해외시장 공략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나 사장은 “주력인 게임포털 ‘피망’을 중심으로 올해 게임부문에서만 총 6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